

東國

2002년 겨울

no.49



편집장 발간사 4·5

지도교수 발간사 6·7

독자투고 184~187

편집후기 190·191

contents

여 성

여성의 정치세력화가 필요한 이유 김소연 한반도재단 홍보팀장 20~25

영화 속 여성—누가 누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조외숙 문학평론가 26~32

네모 속 뒤편 이야기—생리대 부가가치세 폐지 논란

편집위원회 33~37

도 서 관 이 야 기

지금, 여기 중앙도서관 편집위원회 52~53

귀중도서관 탐방 편집위원회 53~55

도서관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철교 도서관 실장님에게서 듣는다 56~57

신축 중앙도서관 그것을 알려주마! 최일우 학술정보서비스팀장 58~61

인터뷰—동국독서왕 장현종 불교학과 01 김경섭 객원 편집위원 62~64

학 인

의과대농성—천막 속 감춰진 이야기 편집위원회 65~67

학자투 합의안,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양희창 부총학생회장 68~71

15주 단축수업 72~75

—일주일을 되찾은 한 학기를 보내며 주진원 총학생회장

—15주 수업시행은 모든 주체의 원-원 프로그램 이상현 교무처 학사지원 실장

내가 들은 명강의·나의 휴학기 80~85

냉철한 눈을 우리에게 제시함으로써, 참다운 지성인으로 거듭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을 한 교지의 모습은 무척이나 인상적이었다.

이제 동국인의 지적 갈증을 더욱 채워줄 수 있는 유익하고 참신한 내용들로 가득 찬 『東國』49집을 기대해 본다. 榮國

학우들과 함께 하는

『東國』

정태선 사과대 02

우리는 가끔 자신이 대학생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지낼 때가 있다. 최근의 시험기간 동안, 그 혼한 신문 한 번 펼쳐보지 못한 것을 시험 때문이라고 말하기엔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사회 전반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지니고 싶지만 뜻대로 안 되는 내 자신을 들추어 보면

한없이 부끄러워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연히 손에 들어온 『東國』은 나를 대학생으로 일깨워 주고 동시에 사회 전반의 이슈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이번 호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최근 논쟁이 되고 있으면서 민감한 사안인, 양심적 병역거부와 동성애 문제에 포커스를 두었다는 데 있다. 책을 펴자마자 가장 먼저 눈길이 간 곳 역시 그 내용이었고 문제의 흐름과 맥을 짚어줌으로써 이해를 높여 주었다. 또한 기획기사에서 월드컵의 화려함 속에 가려진 어두운 면을 조명한 점 역시 월드컵의 걸치레에만 주목했던 우리들에게 경종을 울려주는 재기 넘치는 기사였다.

개인적으로 『東國』에 대한 기대는 학생들의 시각으로 학교의 행정에 대한 문제를 접근하는 것에 있다. 비록 동국대 학생이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오로지 학생회에서 붙인 대자보를 통해서만 학교 소식을 전해듣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일부 학생들은 색안경을 끼고 학생회에서 추진하는 여러 사안에 대해 무조건적인 거부감을 표시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東國』이 그 중간 위치에 서서 학생과 학교를 이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생각한다」는 좀더 쉽게 학자투와 학생회 활동을 이해하고 학생회의 당위성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글이었다. 그러나

나의 네번째 『東國』

이재덕 사회학 01

이에 대한 학교측 답변이나 의견이 없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었다. 좀더 일반적인 학생의 시각에서 양측의 의견을 제시하고 우리로 하여금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으면 한다.

그 밖에 학교에서 생활하는 학생의 모습을 대변해 주는 사이버 공간 〈나의 주장〉에서 인용한 글 역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고, 책의 흐름 상 쉬어 가는 공간으로 활용한 것도 인상깊었다. 또한 '버자이너 모놀로그'라는 조금은 생소한 문화코드를 학생의 시각에서 소개한 점 역시 사회전반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우리에게 간접 체험이나마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

다만 이번 호에서 편집상 가장 아쉬운 점은 노란 글씨로 인쇄된 부분으로 눈에 상당한 피로감을 주었다는 것이다. 디자인상의 의도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 부분을 아예 넘겨야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東國』은 학생이 운영하고 학생이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것을 읽고 함께 생각해보는 사람들 역시 학생이다. 그만큼 신선하고 대학생다운 패기를 담을 수 있는 책이다. 동국대학교 학생들의 대표적인 읽을거리로서 우리 곁에 한 발짝 가까이 다가왔음을 느끼고 있다. 『東國』은 한겨울 시린 두 손에 이런 패기와 열정을 담고 학교와 나를 잇는 중요한 구실을 해줄 것이다. 東國

학생회관 1층을 지나가다 보면 정문의 시계 앞을 주목하게 된다. 그곳에서 심심할 때 읽기 좋은 몇몇 신문들을 보기도 하고 가끔씩 열사들의 사진과 마주치기도 하며, 정체가 불분명한 전단지들을 뒤적거려 보기도 한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인가 학생회관 한 곳에 수북히 쌓인 『東國』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면 "『東國』이 나왔네" 하고 지나간 시간을 생각한다. 남산자락에 발을 들여놓은 이후 4번째 『東國』이 나왔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순간 놀란다. 내가 교지를 벌써 4권이나 보았구나...

지난 호들을 다시 뒤적여 본다. 언제나 느끼는 것이지만 "『東國』"에는 패기가 있다. 기성문화에 젖어들지 않는 젊음과 용기를 교지에서 느낄 수 있다. 특히 나는 「버자이너 모놀로그」에서 그러한 패기를 느낄 수 있었는데 20년 간 보수적 사회의 사회화 과정을 거친 나에게 이러한 금기에 접근하는 것은 신선하다 못해 충격으로 다가왔다. 충격적으로 느꼈다는 것은 나 자신이, 너무나도 평범한 01학번의 대학생으로 그동안 지독할 정도의 남성 중심적인 세뇌를 받고 있었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 아닐까? 남성이고 군대에 가면 열심히 남성권위주의적인 사회에 대한 사상교육을 받게 될 나에게 '여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은 일종의 예방접종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교지가 다른 「버자이너 모놀로그」는 동국의 모든 남학우들이 읽어야 한다는 조금은 건방진(?) 생각을

東國

발행처 『東國』 편집위원회

TEL FAX 02-2260-3680

www.dkum.net

발행인 김미정

편집장 김미정 세무회계학 00

편집위원 김은석 국어국문학 00

엄수용 행정학 01

수습위원 이지혜 사회과학대 02

이진기 사회과학대 02

홍선영 사회과학대 02

지도교수 김진철 정치외교학

디자인 텍스트 · 김용필

『東國』 49집 제작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과 인쇄노동

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